

6월 1일(월) / 잠16-18

▶내용요약: 16장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체요 결정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복됨을 소개한다. 따라서 지혜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술러 지혜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 금(金)보다 나은 지혜에 대해 말씀한다. 17장은 하나님의 뜻에 훨씬 못 미치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고 허탄한 생활을 말씀한다. 올바른 삶의 모습을 먼저 제시하고(1-3절), 그에 못 미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헛된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설명한다(4-28절). 18장은 바른 인간관계를 위한 소극적인 조언으로 분란과 고집과 게으름과 성급함을 절제토록하고, 적극적인 조언으로 신중하고 신실하며 정중함과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을 활발하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질문: 바른 인간관계를 위한 소극적 그리고 적극적 조언은?(18장)

▶생각하기: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지 하는 어리석고 사악한 사람은 자신을 폐망의 길로 이끌 뿐 아니라 가정과 그가 속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까지

6월 4일(목) / 잠25-27

▶내용요약: 25장은 정결과 겸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대행자인 왕에게 인정받는 삶의 비결(1-7절)과 지혜로운 언어생활, 성실과 인내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뤄가는 비결(8-15절),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줄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비결(16-28절)을 소개한다. 26장은 대인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를 제시한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무시하는 자들로 성도가 더불어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다. 27장은 자중(自重)의 중요성과 또 상대방의 발전을 위한 뼈아픈 충고의 귀중성에 관해, 자신을 헤치는 어리석은 자의 형태에 관해, 칭찬 속에 내포된 위험성과 진심어린 권면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에 교훈한다.

▶질문: 대인관계를 허물고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 자는?(26장)

▶생각하기: 올바른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대신(對神)관계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만이 인간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16:7).

6월 7일(일) / 전4-6

▶내용요약: 4장은 인간분위로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다반사로 볼 수 있는 인생의 불평등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인간 세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압제의 현장(1-3절)과 또 무익하고 헛된 수고의 현장(4-12절) 및 정치적으로 명성을 얻은 자가 마침내 무상한 결말을 얻게되는 현장(13-16절)을 소개한다. 진실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활동은 그 결말이 허무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과 모든 활동의 허탄함을

6월 2일(화) / 잠19-21

▶내용요약: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성품)에 대해 가르친다. 첫째, 가난하지만 성실한 삶(1-7절), 둘째 지혜를 얻는 자의 축복(8-17절), 셋째, 자녀훈계의 의무(18-21절), 넷째, 생활지혜(22-29절)에 대해 말씀한다. 20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행에 관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길에 대해(6-12절),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의 완전한 삶에 대해(13-30절)에 가르친다. 전장(20장)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의로운 행실에 대해 가르친 지혜자는 21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상기시키며 주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 특히 지혜자는 21장에서 악인이 당할 운명을 보여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함을 가르치고 있다.

▶질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하나?(21장)

▶생각하기: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세로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6월 5일(금) / 잠28-31

▶내용요약: 28장은 악인과 의인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을 충성되이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는데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좇는 자 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친다. 29장은 한 나라의 번영과 한 가정의 참된 행복을 위한 교훈을 제시한다. 통치자와 관리자들이 공평과 정의로 행함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 가정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자녀에게 훈계와 책망을 잊지 말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 할 것을 가르친다. 30장은 솔로몬의 측근인 아굴이 쓴 잠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지식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있다.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께 의지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요인들을 없애 달라고 간구한다.

▶질문: 악인과 의인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은?(28장)

▶생각하기: 잠언은 국가 지도자가 공의로 다스릴 때 국가, 사회, 가정에 질서와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교훈한다.

강조해 왔던(1-4장) 전도자는 5장에서 약간 관점을 달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자의 허무함을 지적한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한 그릇된 신앙태도(예배, 기도, 서원등)를 지적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끝이 없는 탐심과 그로 인한 피로움을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인생이 누리는 분복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6장에서 전도자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의 허무함(1-2절)과 많은 후손마저도 허무함

6월 3일(수) / 잠22-24

▶내용요약: 22장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건생활에 필요한 조언들을 가르친다. 취할 것과 무가치하게 여기며 버릴 것에 대한 조언(1-16절), 지혜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권면하고, 주의 백성이 마땅히 버려야할 악덕들(22-29절), 성도가 취해야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의 기준이 '하나님 경외함' 임을 교훈한다(4절). 23장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직면하게 될 물질적 탐심과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다. 헛된 세상 재물에 대해 지나친 기대나 의지를 하지 말 것(1-8절),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 두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힘을 것,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24장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것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권면, 공평과 성실과 정직으로 살것을 가르친다.

▶질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23장)

▶생각하기: 지혜자의 가르침은 한 마디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Coram Deo) 서 있다는 심정으로 살라는 교훈이다.

6월 6일(토) / 전1-3

▶내용요약: 인생의 황혼년에 솔로몬은 전도서의 서론 격에 해당하는 1장에서 체형적인 인생철학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한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2절)는 히브리어의 최상급 강조어법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지하는 인생의 철저히 절망적인 결말을 역설하고 있다. 전도자는 2장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기 위해 온갖 육체적 쾌락에 심취했고, 또 지혜를 추구하고 온갖 수고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시도했지만(12-23절) 그 모두는 헛되며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고백한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중에서도 한 가지 빛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따라 생의 열매를 누리는 일이다. 3장은 허무한 인생을 반전(反轉)시키고 허무한 삶을 극복할 희망찬 대안을 제시한다.

▶질문: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허무함을 어떻게 고백하나?(1장)

▶생각하기: 자행자지하거나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의지하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시간표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을 살자.

(3-6절)과 인간수고의 헛됨(7-8절) 및 미래의 소망조차도 허무함(9-12절)을 펴려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난 모든 날이 허무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날들도 허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질문: 하나님을 떠난 모든 활동의 결말은?(4장)

▶생각하기: 인간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과 연합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일 뿐이다.